

두 왕과 두 배신에 관한 이야기

제 1막

옛날 옛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왕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의 분노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의 욕정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여자들과 함께 더럽혔습니다.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속임수와 배반으로 그의 죄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매우 사랑하였지만 또한 공평하셨기 때문에, 왕은 그가 선택한 결과들로 인한 댓가를 치뤄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역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가, 그를 패배시키는데 결정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왕의 아들이 왕을 옥좌에서 내쫓았고, 왕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망신살이 속에서 수도를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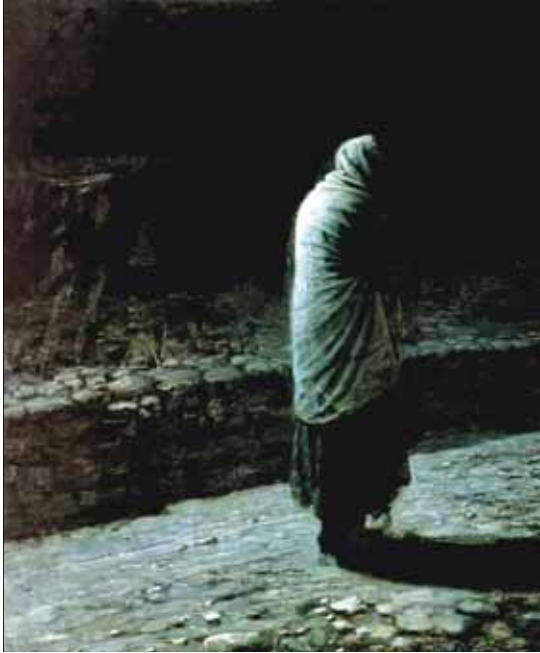
그러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예전부터 하나님은 왕의 아들이 아닌 바로 그 왕을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왕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고, 나의 떡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가 내게 뒤꿈치를 들었도다." 그리고 왕은 현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믿었던 조언자의 조언이 어리석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은 비밀리에 두 번째 조언자를 수도로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두 왕과 두 권좌에 관한 이야기



보내서, 왕을 배신하고 있던 그 신뢰의 조언자를 이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신뢰받고 있던 이 조언자는 어찌나 강한 능력이 있던지,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왕의 세력이 약할 때 그를 사로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곧장 왕을 추격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비밀리에 보낸 두번째 조언자는, 나중에 공격할 것을 왕의 아들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기에 놀랍게도, 왕의 아들은 가장 신뢰받던 조언자의 말보다, 두번째 조언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전 친구이자 조언자는, 왕의 아들이 자신의 조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수도를 떠나 집으로 가서 목을 매고 죽었습니다.

제2막

옛날 옛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전심으로 돌보았고, 특히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을 먹였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는 대접받기보다 대접하였고, 많은 이들을 위해 그의 삶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너무나 사랑하였지만 또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이 살리고자 하

였던 사람들의 죄가 낳은 결과들 때문에, 왕은 댓가를 치뤄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역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친구이자 회계 담당자는, 첩포, 재판, 그리고 결국 이루어진 처형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계 담당자가 배신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지만, 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회계 담당자를 공동체 중심부 안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배신이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았습니다. 왕은 가까운 친구들과 회계 담당자를 마지막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식사 도중 왕은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와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회계 담당자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그 떡을 받았을 때, 그의 안에 있던 사악한 계획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공동체를 떠나, 왕에게 역모를 꾸미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약간의 돈을 받고 그는 왕과 그의 친구들이 가고 있는 곳으로 반역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외진 곳에서, 회계 담당자는 입맞춤과 함께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은 왕을 붙잡아 데리고 갔지만, 곧 회계 담당자는 자신의 배반을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가서 피값을 반역자들의 발 밑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를 떠나 목을 매었습니다.

후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왕들은 다윗과 예수님이요, 배신자들은 아히도벨과 가롯 유다입니다(사무엘하 15-17장, 시편 41:7-9, 요한복음 13, 18:1-11).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에 대한 예언과 그들의 성취를, 두 이야기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들 속에 세심하게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목적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또한 다윗왕과 왕되신 예수님 사이의 공통점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구절들은 마치 망원경 같이 작동합니다: 다윗왕의 인생에 있는 사건들을 확대하여 보면, 다윗이 살던 때의 환경조건을 넘어서,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하고 예견하기 까지 합니다. 망원경을 보는 것처럼, 다윗왕이 경험하였던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암시합니다.

시편은 가끔 현미경과 같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의 한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의 미래 삶에 존재할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호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윗 이야기들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시편 41장 9절에 나타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은 바로 다윗과 예수가 겪었던 배신에 초점을 강하게 맞춥니다. 다윗과 예수는 다른 점만큼이나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비교대조할 때마다, 우리는 두 왕의 삶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시편 41장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죄를 깨닫는 반면, 구세주 예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사실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께서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고, 죄를 위해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시편 41장 10절에서 다윗 왕은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배신자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 받은 시간들과 사건들 - 당신은 이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어떤 순간에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두 왕이 견뎠던 그 고통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왕되신 예수와 같이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유다에게 배신의 떡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믿고, 두 왕 같이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장 12-13절)

선교소식

시카고

미차 코헨의 보고입니다: 저는 우리의 뒤에서 강력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는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계속 만나시거든요!

어떤 남자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예수에 대해 알아보라고 부담을 주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는 혼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자랐고 우리가 서로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웃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다른 코헨을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돌아오는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니 바로 그 날 사무실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이 사야 53장을 읽었고, 그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필요로 한다고 내가 말하였고 그는 그 개념을 이해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 내가 물었고, 그는 아직 그렇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성경공부와 지역 교회 모임에 대해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 동안 저는 코헨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코헨씨는 부인과 함께 지역 교회 모임에 나가고 있었고, 말씀을 전부 믿지는 않지만,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약을 전부 끝냈고 이제 아주 빠르게 신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거룩한 이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 어떤 이들이 주님의 계획의 한 부분, 또는 더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와 연락할 수 없었음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향하게끔 그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퀸즈랜드

밥 멘델스존과 시드니 팀은 일주일 동안 브리스베인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세인트 루시아에 있는 퀸즈랜드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학생회관 근처에 있던 밥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샬롯(비슷한 가명입

니다)이었고 그녀는 복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에 광고를 본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를 전도하는 기독교인 친구가 샬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티셔츠들을 보았고, 우리의 존재가 마치 천국으로부터 온 싸인같이 강하게 느꼈습니다. 밥은 그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그녀는 더 알기 원하는 깊은 갈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밥은 그녀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는, 그의 간증문("유대인 선교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과 신약을 포함하는, 다른 복음 자료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샬롯이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모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그녀에게 계속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이스라엘

오퍼 리비의 보고입니다: 제즈릴 골짜기에서 행해진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캠페인에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예수아의 이름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구원의 메세지를 선언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보고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중년의 이스라엘인 CHOVAV는 저와 짜치를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예수아를 왕이자 구주로 고백하였고, 현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CHOVAV은 그 후에 설명하기를, 그가 그 현수막을 보았을 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구호에 불과했지만, 저는 예수아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책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디쉬어를 말할 줄 아는 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우리와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있는 도중에 우리의 현수막을 보았고, 그 후에 다시 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나서, 신약성경을 건네주었고, 그를 섬겼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즈릴 골짜기 캠페인 동안 진리를 찾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계속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회의 믿는 이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전의 캠페인들에서 만났던 이들과도 계속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헤르쯔리야에서 데이빗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와 접촉한 때보다 복음에 더 열려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려고 만났을 때 그 또한 예수아를 구주로서 받아들이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섬기는유
태인들”의설립자
Moishe Rosen의생각들

Moishe의사색들

JEW
FOR
JESUS

Moishe Rosen이 올해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천하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글들을 뉴스레터에 실어달라는 요청들이 독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Moishe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 뉴스레터에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와 같은 칼럼들을 종종 실곤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제 딸은 현재 스무살인데, 대학에서 만난 유대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서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상당히 예민하고, 저희는 그 청년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를 불쾌하게 만든다든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직면한 문제는, 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녀는 구주인 예수님을 인생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이 젊은 청년을 그녀의 존재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어 갖고 결혼을 한다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따님이 당신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어떤 사람의 인생 동반자는 또한 기도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저는 그 젊은 청년이 훌륭하고 품위 있고 도덕적인 사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젊은 청년에게 전도지를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당신은 먼저 따님에게 전도하고, 그녀가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뜻하지 않고 “교회”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향한 약속들, 언약들, 그리고 경고들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 적용은 전적으로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나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이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은유적 표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지

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신도들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무언가를 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새 언약(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반한)의 한 부분인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왜 사도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라고 하였을까요.

윗 구절에서 볼 때 사도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은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계속하여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언약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언약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저희 전도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주시거나 이 뉴스레터에 있는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적용이란, 특정 말씀의 뜻을 넘어서 바로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자는 이 말씀의 진리와 자신의 인생을 연관시킬 것인가? 반면 해석이란, 오직 기록된 말씀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